

참여와 연대의 아름다운 아이콘(Icon) : 김용익의 양평프로젝트/프로젝트

모더니즘은 미술에게 실로 많은 공과를 선사했다.

시민사회가 기술적 진보와 권력으로부터 민주적 권리를 해방했던 것처럼 미술은 예술적 자주성(autonomy)이란 가치에 눈을 떠 신화나 종교, 그리고 재현의 압제로부터 독립해 미술의 자존을 찾았다. 잭슨 폴록의 말처럼 “어떤 예술적 행위도 예술”일 수 있는 독립과 자존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해방을 선사했다. 그러나 기술적 해방과 권력적 해방의 불완전함(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등)을 논하는 탈근대 논의에서 보듯이 예술의 자주성 역시 삶으로부터의 탈출, 격리, 고급화라는, 일상에 대한 미학적 횡포를 만들기도 했다. 수직적 위계 속에서 작가는 군림하고 관객은 주눅드는 또 하나의 군림이 복잡하고도 정교한 미학을 통해 끊임없이 은폐되고 정당화되기도 했다.

공공미술(public art)은 모더니즘의 사유화, 고급화 전략에 의문을 표시하며 삶에 개입하고 미술과 일상을 연대시키려는, 사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미술의 일그러진 자주성을 바로 펴려는 노력의 하나로 진행중인 미술-사회학적 프로젝트다. 기존 미술이 미술관이나 화랑이란 격리된 공간에서 미학적 자주성을 노래한다면 공공미술은 거리나 공용공간(public space)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솔한 삶의 생채기들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찾아 나서는 행위로 미술과 삶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그렇다고 공공미술이 순수미술에 저항하는 대안적 흐름을 주장하지 않는다. 문화적 소양이 낮은 관객의 계몽을 전제하거나 대중문화적 요소로 가미하는 미술의 대중화가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public access) 삶의 내용, 또는 삶의 도구로 더불어 사용하며(public use) 일상 속으로 그 만남의 의미를 생환(生還)하는(public ownership) 미술의 민주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순수미술의 동반자이다. 삶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순수미술을 삶 속으로 끊임없이 개입시키고 삶과 미술의 접점을 넓혀 가는, 문화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확인하고 확장하는 문화민주화운동이다.

우리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김용익의 양평프로젝트/프로젝트는 이러한 모더니즘의 공과에 대한 차분한 사유에서 시작된다. 화단의 선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온 중견작가이면서도 그는 주변의 걱정과 오해를 개의치않고 모더니즘이 선사한 미술의 자주라는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삶의 가치로 확인하고 확장하려는 미술적 도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간간이 공공미술과 관련된 논의나 행사가 시도되었지만, 공공미술은 여전히 미술의 서자, 순수미술의 주변부로 폄하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술의 쓰임새에 대한 차분한 사유와 2년여의 준비를 거친 김용익의 이번 실험과 도전은 미술과 삶의 연대를 우리 사회, 우리 문화의 정식 의제로 제안하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는 양평프로젝트/프로젝트의 개념 설정, 프로세스(process), 창작 방식, 표현 방

식 등에서 잘 드러나는데, 프로젝트의 공공성, 소통성, 투명성을 골고루 갖추면서도 함께 만들고 함께 전시하며 함께 소유하는 공공미술의 성격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개념은 작가가 제안하고자 하는 공공미술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①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기념비성을 배제한다(non-monumental) ②영원불변할 듯이 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철수된다(temporary) ③설치와 철수에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며 철수후 벽돌들은 모두 재활용한다(recycling) ④모든 발생 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sustainable)는 작가의 프로젝트 운영철학은 영웅주의적 입장에서 제작되는 순수미술의 제작방식을 전복시키며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왔던 '파괴'와 '강요' 등 미학적 횡포를 재개념화시켜 미술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미학을 개척한다. 그동안 순수미술, 특히 도시를 미화시킨다는 일방적 주장 아래 제작되었던 기념물, 조형물들은 삶, 공간, 사람들에 대한 미학적 압제를 주저 없이 휘둘러왔다. 물론 좋은 작품의 사례도 많지 않지만, 대체로 미술은 삶 위에, 작가는 관객 위에 관객 위에 군림하며 크기와 높이와 영구성, 막대한 비용으로 그 군림을 은폐하고 정당화했다. 이를 받아들이면 문화인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문화인이 되는 극단적인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왔다. non-monumental, temporary, recycling, sustainable로 정리되는 프로젝트의 개념은 그 동안의 군림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선언이자 삶, 공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개척하는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작가는 작가와 관객의 위상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작가와 관객의 관계는 또다른 영웅과 그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미개인의 그것이었지만, 작가는 삶 속으로 깊숙이 개입하는 대신 자신의 역할을 매우 제한했다. 창조자에서 매개자로 설정한 작가의 역할은 자신이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과 비평의식, 표현력을 증대시키는 촉매로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할 뿐이다. 작가는 양평 군민이 어떤 염원으로 모은 8만장의 벽돌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양평, 양평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방식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점이 public access의 아름다움이다. 작가는 보편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양평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개입했고 관객들은 수동적인 문화소비자가 아니라 창작을 함께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문화생산자의 위상을 획득한다. public access는 public use, public ownership을 자동적으로 촉발하는 민주적 가치이며 이러한 위상 재설정 은 자연히 관객의 복권 뿐 아니라 삶[미학=권력]의 지배 아래에 있다]과 지역[글로벌리즘=보편주의] 아래에 있다]의 회복을 이끌어낸다. 미술의 아름다움이 형식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을 활용하는 방식, 즉 미술을 통해 사람, 삶, 지역을 재활시키는 작가의 미술 씬 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번 프로젝트의 또다른 미덕은 비평을 통해 축제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흔히 미술은 물리적인 오브제로 간주된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공간 역시 물리적으로 구축되었을 뿐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미술 역시 형식적으로 아름다운 오브제를 지향해왔다. 작가가 끄집어낸 양평 이야기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솔한 생채기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지속시키는 양평, 부각되는 것은 그 생채기들일 수 있는데, 작가는 그것들을 차분히 프로젝트에다 전송시킨다. 예술의 비평행위이다. 물리적으로, 지역적으로만 다가오는 양평에 대한 비평은 양평을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열어준다. 자신과 남에 대한 응시와 비평이 시작될 때 일방적으로 제공된 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는 시작된다. 지역과 삶의 생채기를 어루만지고 참된 재활(Regeneration)을 꿈꾸는 축제가 시작되었다.

작가, 작품의 역할을 통해 만남의 명석을 까는 방식 역시 비평과 축제를 함께 만든다. 작가는 양평이라는 구체적 지역 이야기를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현실과 예술, 관광과 지역/토속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명석을 깔고 있다. 프로젝트 자체가 과정형이기 때문에 그 명석은 이제부터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며, 내용은 상수원 관리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정서적 편차를 극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토속적 삶의 속내에 대한 탐구일 수도 있다. 참여적이고 자발적인 프로젝트의 특성이 누구나 올라가 마음 편히 놓고 쉬면서 삶에 대한 비평의식, 표현의식을 얻을 것이다. '참여'와 '연대'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 생산과 소통, 소유의 방식이 분절된 사회와 사회, 사회와 자아, 자아 내부의 분열을 재통합하는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양평프로젝트/프로젝트는 '참여'와 '연대'가 민주주의, 문화소통의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의이며 미술과 삶이 소통하는 중심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예술행위가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예술'임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도 더불어 사는 공공성, 살만한 공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공공미술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박삼철(공공미술기획자·아트컨설팅서울 소장)